

장수군 증축청사 부실 논란

2층~3층 연결 계단 통로 시멘트 기둥 4개 기울어 있어

장수군 증축청사가 외부 가림막 철거로 외관이 공개돼 웅장한 위용을 드러내 드러냈다.

군민의 숙원사업인 군 증축청사는 현재 있는 청사가 노후 되고 공간이 협소하며 주차공간이 부족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쾌적한 공간에서 민원인들에게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5년 6월 착공에 들어갔다.

그동안 증축청사는 골조공사가 완료됐고 전기,통신,소방,창호,등 내외부공사가 정상추진되며 건축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명품청사로 입주에 앞서 증축청사의 현재 북쪽 도로변에서 보면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계단 통로의 양옆의 높이 약 3.5m, 지름 40cm인 4개의 시멘트 기둥이 육안으로 봐도 각각 수직으로 되지 못하고 아래와 위의 차이가 확연히 기울어 있어 부실한 공사가 되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무너질 염려야 없겠지만 외부에서 청사를 보았을 때 기울어진 기둥을 보고 있으면 과연 하자가 없는 명품청사로 불러야 할지, 그동안 공사 관계자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왔는지의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군의 발전을 위해 군민과 함께 백년대계를 설계할 소중한 신청사에 오점



장수군 증축청사의 북쪽 도로변 쪽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계단 통로의 양옆의 높이 약 3.5m, 지름 40cm인 4개의 시멘트 기둥이 육안으로 봐도 확연히 기울어 있다.

을 남겼다는 아쉬움을 갖게 하고 있다.

군 증축청사는 총사업비 293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1만2,643.56㎡,대지 1만 1,255㎡,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86면의 지하주차장과 중앙감시실, 군 민회관,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이 조성되는 등 친환경 복합행정터전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위쪽과 아래쪽의 기울기 차이는 최대 7.5cm라며 시멘트 기둥의 마감재는 페인트이나 이를 감추기 위해 다른 마감재를 쓸 예정"이라며 "또한 통로의 난간대 설치를 하면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장수군청사 증축공사는 주)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대표 정용찬)의 감리에 응진종합건설(주)(대표 박강자)에서 시공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아이디어 공모

9월 15일까지... 출산장려·인구유입·인구유출 방지 등 구체적 대안 제시

진안군은 지난 14일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참신하고 창의적인 다양한 아이디어를 9월 15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인구 감소폭을 줄이고 인구증가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군민의 다양하고 실용적인 제안을 발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내용은 인구 늘리기를 위한 출산장려, 인구유입(투자유치, 귀농귀촌, 교육지원 등), 인구유출 방지 등 시책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된다.

참여방법은 인터넷, 우편, 방문 등을 이용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군청 홈페이지(www.jinan.go.kr) [참여마당] -

[인구정책]에서 제안서 양식을 내려 받아 제안내용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심사방법은 제안의 구성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우수 제안자는 △최우수 1명(50만원 상품권), △우수 2명(30만원 상품권), △장려 2명(10만원 상품권)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공무원에게는 시상과 함께 인사 가점과 주요업무 자체평가 가점을 별도로 부여할 예정이다.

진안군 인구는 1966년 10만2,515명을 정점으로 2005년에 융담댐 건설로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3만명 선이 무너진 이후 인구 감소추세가 계속돼 지난해 말 2만6,027명으로 줄어들어 이제 2만5,000명 선까지 위협받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보건소, 지역아동센터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 교육

진안군보건소는 지난 14일 취약계층 아동들의 구강건강 자립이로서의 역할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교사 160여 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일 마이음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16일까지 구강관련 전문가가 직접 5개소 아동센터를 순회하며 관리하게 된다.

특히 구강관리 교육과 함께 치면세균막 검사, 개별 직접 잇솔질 교육, 불소도포 등도 진행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안성면민의 날 행사 개최

윤순희·한종석씨 군수표창...면민의 장 수여도

무주군 안성면민의 날 행사가 15일 안성면 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됐다.

안성면 청년회(회장 권오석)가 주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주민들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만들고 출향인들에게는 애郷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황정수 무주군수와 유승열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주민 등 4,000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황정수 군수는 축사를 통해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군의 지력이 바로 안성면에서 나오고 있다"며 "천마종자연구와 종균

배양, 덕유산탐방배치센터로 더욱 새로워질 안성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건강하고 평안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기념행사와 리 대항 체육행사, 노래자랑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윤순희씨(54, 내외당길)와 한종석씨(59, 시장이랫길)가 면민화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군수표창을 받았으며, 박찬호 씨(87, 덕유산로)가 안성면민의 장 문화체육장, 공환규 씨(65, 마암길)가 산업근로장, 김말수 씨(62, 단지봉길)가 향토공익장, 김순덕 씨(52, 바들목길)는 효행장을 수상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마령면민의 날 화합한마당 성료

공익장 전금미·애향장 신백식씨 수상

진안군 마령면 '제52회 면민의 날' 화합한마당 행사가 15일 마령고등학교 강당에서 주민과 향우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굿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항로 군수, 박명석 군의장, 김현철 도의원, 재경향우회 원, 주민 등 다양한 인사들이 함께했다.

홍겨운 농악과 신명나는 난타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기념식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해 공익장에 전금미씨, 애향장에 신백식씨가 면민 의장을 각각 수상했다. 이와 함께 법킨아트 공예품 전시

및 체험, 아이스크림, 커피, 떡볶이 등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 장터가 함께 어우러져 화합의 장을 이뤘다.

특히 화합한마당에 이어 펼쳐진 노래자랑에서는 각 마을을 대표하는 노래군 20여명이 참가해 평소 같고 님은 끼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마령면 화합한마당의 의미를 장식했다.

이승호 면장은 기념사에서 "역사와 전통을 함께하는 우리 마령면이 더욱 발전하길 바라며 앞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스페셜기3NO운동, 우렁이 농업 활성화에 면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계북면민의 날 행사 '성료'

공익장 김중근·애향장 김광순·효열장 이순남씨

제68회 계북면민의 날 행사가 지난 15일 각급 기관단체장, 출향인,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실골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풍물, 색소폰, 가야금 병창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기념식에서는 봉사과 희생정신으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지역발전에 앞장서 온 김중근씨

(공익장), 김광순 씨(애향장), 이순남 씨(효열장)에게 면민의 장을 수여했다.

이어 마을별로 마라톤, 합동줄넘기, 고리걸기, 투호, 토마토 먹고 돌아오기, 율놀이, 제기차기 등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는 다채로운 체육행사를 가져 주민들 상호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덕유산 의병길 체험행사 개최

제6회 덕유산 의병길 체험행사가 15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호국의지가 살아 숨쉬는 무주를 재조명하고 학생들의 애郷심을 고취시킨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문화원이 주관한 가운데 무주읍 자남공원, 안성면 칠연의총과 원봉사 일원에서 진행됐다.

자남공원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체험 참가 청소년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황정수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나라와 주권을 되찾는데 우리 무주와 군민들이 일조를 했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가 의병들의 희생을 더욱 값지게 하고 함께한 여러분은 내 나라 내 고장을 더욱 빛나게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로 무주읍에서 안성면까지 이동한 참가자들은 원봉사에서 통안마을, 솔내읍 산촌마을, 칠연의총까지 약 7km를 걸은 후 박춘실 의병장 전적비와 의병대장 문태서 장군의 순거비에서 현화와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 학생들은 "의병이 활동했던 길을 걸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다"며 "무주에서도 수많은 의병들이 있었다는데 놀랐고 내 나이, 내 위치에서 애국할 수 있는 길이 뭔가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한편, 덕유산은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 지역 의병들의 집결지이자 항일항쟁을 벌이던 격전지로 산세가 높고 험해 국난이 있을 때마다 구국항쟁을 벌이던 의병들의 성지로 알려져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청소년집 '방학특강' 호응

장수군청소년문화의집은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 방학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이번 여름방학 특강은 최근 초·중생 80여명을 대상으로 '신사임당과 함께하는 북아트', '조물락 화분만들기', '요리교실' 등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신사임당과 함께하는 북아트는 도서 '꿈속에서'를 읽으면서 신사임당에 대해 알아보고 북아트로 그려보는 체험활동이며, 화분만들기와 요리교실은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이다.

관계자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밝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문화의집 공간에 대한 이해를 높여 문화의집 이용과 청소년활동 영역을 확대할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